



성경번역과 문화의 구속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전쟁과 그 땅 거민들을 쫓아내는 일은 물리적인 전쟁이라기보다는 영적인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창세기 15:6절에서 아브라함에게 언약을 재확인 시켜주실 때 그 사실을 분명히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거룩한 전쟁을 치르기 전에 먼저 할례를 받아야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동시에 자기 백성을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보여주셨습니다. 가나안 족속들을 빨리 쫓아내지 않으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함이었습니다 (출 23:29).

선교사들은 이 훌륭한 하나님의 모범을 따라야 합니다. 섬기는 문화에 있는 악한 것들을 뿌리뽑는 과정에서 그들의 삶이 황폐해지지 않도록 매우 조심해야 합니다. 케냐의 성경번역선교회 (Bible Translation and Literacy) 사역자인 존 옴마니는 그의 글 "타라카 부족의 여성 할례: 성경번역 단체의 역할에 대한 사례연구" (Tharaka Female Circumcision: A Case Study in the Role of the Translation Organization)에서 아주 좋은 예를 보여줍니다.

성경과 함께 읽는 성경번역선교 이야기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3/5	3/6	3/7	3/8	3/9	3/10	3/11
신 29-31	신 32-34	수 1-3	수 4-6	수 7-8	수 9-11	수 12-14

여성 할례는 여성 성기 일부를 절단하는 것으로, 이를 시행하는 사람들은 할례받은 여인들이 성생활에서 남성을 압도하지 않게 되고 결혼했을 때 정조를 더 잘 지킨다고 믿습니다. 외부인들이 보기에는 분명히 악하고 속히 근절되어야 할 행위입니다. 하지만 타라카 성경번역 위원회는 이 할례 의식에 성경적 가치와도 부합하는 좋은 전통적 가치들이 있음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통과 의례 혹은 성인식으로 치러지는데, 의식을 행하기 전에 존경 받는 나이 든 여인들이 어린 소녀들에게 성교육을 시킵니다. 정조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전수해줍니다. 동시에 이 의식을 통해 소녀들은 자기 부족에 대한 강한 소속감을 갖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타라카 부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매우 중요한 요소들이었습니다. 따라서 성경번역 위원회는 클리토리스를 제거하는 악습은 금지하지만, 교육과 가치전수의 전통은 지킬 것을 권했습니다.

사실 할례는 몸보다는 마음에 행해져야 하는 것입니다.

"세미나를 통해 이렇게 큰 도움을 받을 줄 몰랐습니다. 성경학교에 다녀왔지만 여성할례는 사악한 풍습이니 무조건 금해야 한다는 말만 들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까? 그건 어머니에게 당신이 정말 더럽고 추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설사 그렇다 하더라도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요! 어른들이 참석해서 이 세미나를 듣고 우리 공동체 전체가 이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씀해주셔서 너무나 기쁩니다. 지금 소녀들에게 이렇게 가르치게 되었고, 정말 잘 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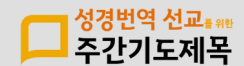
일단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성경이 전해지면, 그 말씀이 어둠을 몰아내고,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며, 타락한 문화가 구속받습니다!

- 글: 이규준 그림: 김예은



타락하고 왜곡된 문화적 행위들에 대해 진리의 빛을 비추셔서 파괴적인 것을 생명 충만한 것으로 바꾸게 해주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 오늘도 성경번역 사역 현장에 임하셔서 현직인 사역자들에게 말씀의 참 진리를 비취주소서!

성경 번역 삶의 변혁 Translating Scripture, Transforming Lives



Read the Bible, Bless the Bibleless



God's Word Redeeming Cultures

words by Gyoojun Lee & illustration by Yaeun Kim

Joshua's campaign to enter the land of Canaan and drive out the Canaanite peoples was more of a spiritual than a physical war. God made it clear to Abraham when He gave the confirmation of His covenant to Abraham (Genesis 15:16). That is why the Israelite people had to get rid of their shame, or sin away by doing circumcision before they got into the battle. God also showed His loving care of His people when He did not drive out the Canaanite peoples too quickly; it was so that the land would not become desolate (Exodus 23:29).

Missionaries are supposed to follow these excellent examples that God has shown us. They should be very careful not to make people's lives desolate in the process of eradicating evil from their culture. John Ommani, a member of Bible Translation and Literacy, the Wycliffe organization of Kenya, shared a good example in his article, "Tharaka Female Circumcision: A Case Study in the Role of the Translation Organization."

Mar 5	Mar 6	Mar 7	Mar 8	Mar 9	Mar 10	Mar 11
Deu 29-31	Deu 32-34	Jos 1-3	Jos 4-6	Jos 7-8	Jos 9-11	Jos 12-14

Female circumcision is also known as 'female genital mutilation.' People who practise this believe that circumcised women will not be tempted into sexual activity and that this will help them be more faithful to their husbands when they get married. To outsiders, this is definitely an evil practice that should be abolished. But the Tharaka translation committee found that there are other good traditional values that comply with biblical values in this practice.

This practice is done as a rite of passage. Respected older women give young girls sexual education and transmit the value of keeping sexual fidelity before they observe the ritual. This ritual also gives young girls a strong bond to their tribe. These are very important values in keeping their Tharaka identity. Therefore, the translation committee suggested to preserve the educational part while getting rid of the evil, physical mutilation of the female clitoris. Yes, circumcision should be done to our inner selves, rather than to the outer body.

Ommani tells us about the result by quoting Rev. Githetu, a local Methodist pastor.

"I have never known these seminars could help me so much. I had been in Bible school and all I was told was that we should stop circumcising women, that it was evil and wicked. How could I tell that to my people? It is like abusing your own mother of how ugly and dirty she is. Even if she is, you do not tell her just bluntly like that! I am glad that the old men who came for the seminar said that the whole community needs to hear this. The way people are now teaching this to the young girls is gaining momentum."

Once God's Word becomes available in a language that people can understand, the darkness overruling their community is expelled, their life begins to be transformed, and their culture is redeemed.



Week 10 Prayer: It is always the Holy Spirit that illuminates His truth on the corrupted and distorted cultural behaviours so that the people of that culture can change their destructive behaviors into life-enriching ones. Holy Spirit, please come today and show Your truths to the national Bible translators.